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기획전

김신욱 개인전 《보물섬: 출몰하는 유령들》 개최

2023. 10. 13. (금) ~ 12. 31. (일)

보물섬
MUSEUM HANMI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출몰하는 유령들



ISLAND 2023.10.13. -- 2023.12.31. KIM
TREASURE 김 신 욱 SHINWOOK

- 관찰과 수집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사진에 담아내는 김신욱 사진전 개최
- 약 1년 반 동안 한반도 남단과 주변의 섬들을 돌아다니며 작업한 신작 <보물섬>의 주요 작품 20여 점과 아카이브를 선보여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는 김신욱의 개인전 《보물섬: 출몰하는 유령들》을 2023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뮤지엄한미 삼청별관에서 개최한다.

■ 김신욱은 관찰과 수집을 통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사진으로 탐색,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는 전작 〈네시를 찾아서 *In Search of Nessie*〉(2018~2020)에서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산다는 전설 속의 괴물 '네시'를, 〈단절의 망탈리테 *Mentality of Disconnection*〉(2021~)에서 '한국호랑이'와 '동해북부선' 등을 추적하며 특정 대상과 장소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그 진위와 상관없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작업의 주된 테마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1년 반 동안 작가가 한반도 남단과 주변의 섬들을 돌아다니며 작업한 신작 〈보물섬〉의 주요 작품 20여 점과 아카이브를 선보인다.

■ 《보물섬: 출몰하는 유령들》은 김신욱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제정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 군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2018년 보물선으로 다시 출현해 사기행각에 이용된 기사에 주목하면서 출발한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유령과 같은 동해 바닷속 침몰한 보물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궁금증을 품은 작가는 보물선 소문의 근거인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흔적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 러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아시아의 영토와 인력, 수많은 자원들을 수탈한 일본군은 소위 '야마시타 보물'이라 일컫는 금은보화들을 패망 직전 아시아 곳곳에 숨겨 놓았다고 전해진다. 돈스코이호 뿐만 아니라 제주시 아라동의 산천단 곰솔 일대 지하 동굴에 금괴와 보물이 매장되었다는 소문은 현재까지 금괴 탐사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실재했던 사건들과 결과물이 현재의 우리에게 파생되어 보물선 혹은 금괴와 같은 유령들로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출몰하는 유령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영역을 침몰선에서 침몰선 주변의 섬들로 확장한다.

■ 김신욱은 울릉도를 시작으로 지심도, 거제도, 가거도, 가덕도, 취도, 중죽도, 제주도, 그리고 일본의 쓰시마 섬(대마도)을 방문한다. 이 섬들은 일본군이 군사기지로 활용한 곳으로, 섬 안에서도 깊숙한 장소에 포대나 벙커, 동굴진지, 탄약고와 망루, 관측소 등 군사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문한 제주의 많은 장소가 4·3사건 상흔의 기억과 시간이 봉인된 채 단지 보물과 숨겨진 금괴 등으로 단순화되어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현실에 주목한 작가는 숨겨진 과거의 시간 속 유령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어떻게 출몰하고 있을지 그 탐색의 경로를 추적하고자 했다.

■ 전시 개막과 더불어 전시제목과 동명의 사진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신작 〈보물섬〉의 전체 연작과 아카이브, 작가 노트가 담겨 있으며, 뮤지엄한미 김선영 학예연구관의 기획글과 이영준 비평가의 비평문이 수록되어 있다.

■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관람객 참여 워크숍 등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10월 21일(토)에는 크리스티의 국제사진부 부장인 다리우스 하임즈(Darius Himes)와 김신욱이 사진집 제작에 관한 주제로 북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월 11일(토)에는 작가의 여정과 작업 세계를 이영준 비평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아티스트 토크를,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김신욱의 작업 방식을 재해석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진 워크숍 프로그램이 11월 18일(토), 12월 2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시기간 내 전시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과 가족끼리 참여할 수 있는 가족대상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가 프로필

김신욱(b. 1982)은 서울을 기반으로 런던과 밀라노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주변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수집을 통해 특정 세계를 구성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장소나 기억이 인간 및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특정 장소나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들과,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인지와 경험에 의해 의미를 갖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이주와 이동, 단절과 파괴 등으로 과거와 분리돼 장소성을 갖지 못하는 공간과 이와 비슷한 인간이나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에서 순수예술 학사와 영국 왕립예술학교 (RCA)에서 사진학 석사, 영국 이스트런던 대학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제12회 일우사진상 전시부문, 제7회 아마도 사진상을 수상, 제10회 KT&G상상마당 SKOPF 올해의 작가에 선정되었다. 뮤지엄한미 젊은 사진가 포트폴리오 View Review 프로그램 연계 출판물을 비롯해 『THE NIGHT WATCH』, 『IN SEARCH OF NESSIE』 등 여러 출판물이 있으며,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1. 북토크 프로그램

- 개요: 크리스티(Christie's) 국제사진부 부장이자 『Publish Your Photography Book』의 저자 다리우스 하임즈(Darius Himes)의 특별강연으로 포토북의 역사적 맥락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강연의 1부에서는 하임즈의 사진가를 위한 포토북 제작 과정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삼청별관에서 열리는 《보물섬: 출몰하는 유명들》의 김신욱 작가와 하임즈의 대담을 통해 김신욱의 기존 사진집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 참여자: 다리우스 하임즈(크리스티 국제사진부 부장), 김신욱 작가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토) 오후 2시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2층
- 참가비: 20,000원

■ 북토크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필



다리우스 하임즈는 크리스티의 국제 사진 부서 책임자로 경매, 전시 및 카탈로그 제작을 총괄 감독해왔다. 그는 엘튼 존 경과 데이비드 미르빗슈, 현대 미술관 및 토마스 코어퍼 컬렉션을 포함한 여러 수집가 및 기관과 함께 일했다. 2014년 크리스티에 합류하기 전, 샌프란시스코의 프란켈 갤러리(2011~2014)의 디렉터로 예술가 리 프리들랜더, 리차드 미스라흐, 로버트 아담스, 케이티 그래넨 및 알렉 소스와 협업했다. 2007년에는 비영리 사진 및 시각예술 출판사 라디우스 북스를 공동 설립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포토북 전문 저널인 포토아이 북리스트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인터뷰 진행자, 강사 및 필진으로, 그는 애퍼처, 포토북 리뷰, 블라인드 스팟, 북포럼, BOMB 및 수많은 책에 기고했다.

2. 아티스트 토크

- 개요: 여러 장소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구한 김신욱의 여정과 작업 세계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
- 참여자: 김신욱 작가, 이영준 비평가
- 일시 및 장소: 11월 11일(토) 오후 2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 대상: 일반인 25명
- 참가비: 무료

3.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 개요: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기록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김신욱의 작업 방식을 재해석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진 워크숍 프로그램
- 진행: 김신욱 작가
- 일시 및 장소: 11월 18일(토), 12월 2일(토) 오후 2시 (총 2회)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 대상: 사진 전공자 및 일반인 15명
- 참가비: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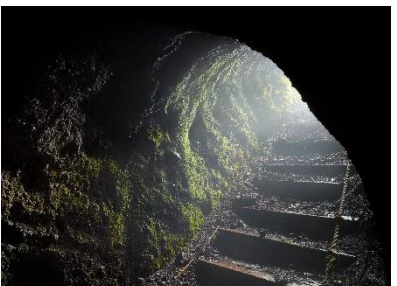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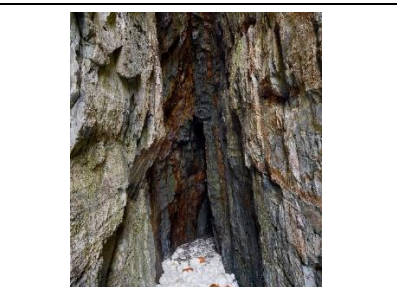

4. 가족대상 프로그램

- 개요: 작가가 보물선을 찾기 위해 떠났던 여정과 같이 참여자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보물선을 직접 만들어 표현하고, 소중한게 간직하고 싶은 것을 보물선에 담아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12월 16일(토) 오후 2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 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8 가족 (총 정원 최대 20명)
- 참가비: 가족당 10,000원

5. 관람객 참여 상설 프로그램

- 개요: 아카이빙 된 시각자료를 통해 여러 장소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흔적을 찾아 열람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미지 혹은 이야기를 선정하여 직접 그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보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참여 방법: 전시장 1.5층에 비치된 태블릿 및 워크시트를 보고 관심이 가는 이미지와 사건을 직접 선정, 전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비치 후 다른 관람객과 공유
- 일시 및 대상: 전시 기간 중 상시 진행,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관람객 대상 무료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p>〈선녀탕〉, 2023, Inkjet print, 50x66cm ©김신욱</p>
2		<p>〈이모자키 포대〉, 2023, Inkjet print, 120x160cm ©김신욱</p>
3		<p>〈가마오름 동굴진지〉, 2023, Inkjet print, 50x66cm ©김신욱</p>
4		<p>〈중죽도〉, 2023, Inkjet print, 66x50cm ©김신욱</p>
5		<p>〈섯알오름〉, 2023, Inkjet print, 120x160cm ©김신욱</p>

<p>이미지 요청 및 문의 이은진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p>	<p>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김신욱 보물섬</p>
---	--

※ 이미지 및 추가 자료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주소: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김신욱 개인전 《보물섬: 출몰하는 유령들》

전시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 ~ 2023년 12월 31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11)

전시작품 : 사진 20여 점, 아카이브 등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람시간 : 화-일 10:00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문의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대표전화 02-722-1315, press@museumhanmi.or.kr

※ 이 전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및 개막 행사 없이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김신욱 보물섬